실업률 높다는데 생산직은 구인난

지역中企 일손없어 문닫을 판

"임금 적다" 외국인연수생들도 이탈

광주 하남산업단지에서 플라스틱 사출업체를 운영하는 K모 대표는 요즘처럼 기업하기 힘든 적이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고유가, 환율하락에는 어느 정도 이력이 생긴 상태다. 그런데 올 초 외국인연수생 10명 가운데 4명이 '탈출'한데다, 3년여 동안 공들여 가르쳐 놓은 2명의 전문기술자가 '월급 많은 업체로 옮긴다'면서 부산으로 훌쩍 떠나버리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남산단내 대기업 2·3차 협력업체 직원의 월급은 잔업·특근비를 포함해 120만~150만원, 외국인연수생 80~100만원에 머물고 있다. K대표는 "용역업체의 임시 인력 6명으로 '땜질'해야 원청업체의 납기일정을 겨우 맞출 것 같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고질적인 자금·판로난에다 이젠 일손 구하기가 광주·전남지역 중소업체들의 목을 죄고 있다. 청년실업은 심각하지만 광주·전남 고용시장은 열악한 기업구조가 열악한 임금으로 이어지면서 공장들은 기술자를 못 구해 발을 구르고 있다.

웬만한 사무직 신규채용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뤄지는데다 생산직이 대부분인 지역 고용시장은 열악한 임금으로 외면받는 기형구조가 굳어가는 것이다. 청년들은 구직난, 기업들은 구인난을 부르짖는 '양극화 현상'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농림어업 비중이 현저히 높은데다, 제조업을 포함한 사업체수(22만1천985개)도 전국의 7%를 밑돌아 절대적인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체 사업체수 가운데 제조업체수는 1만7천470개에 불과한데다 이중에서도 1~3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가 99.7%를 차지, 영세한 지역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고유가·환율하락 등으로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기업 26개사 중 30%만 올 하반기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희망자들을 애태우고 있다.

결국 낙후된 산업구조→투자와 생산인프라 부실→임금·복지수준의 저하와 고용불안→전문인력의 역외유출 등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소촌공단 A업체 대표는 "지역내 중소업체들의 임금이나 복지수준이 다른 지역에 턱없이 뒤떨어진다"면서 "때문에 2~3년의 실업을 감수하더라도 서울이나 부산 등 타지로 떠나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열악한 노동시장 구조는 최근의 고용지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6월말 현재 광주시의 청년실업(15~29세)률은 11.4%로, 전국 평균(8.0%) 보다 3.4%나 높다.

전남대 홍성우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장·단기 고용정책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직업정보제공, 맞춤형교육, 인턴십 강화 등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3일 오전 광주시 상무지구 여의산 정상 광주 단성전에서 열린 단기4339년 국조 단군대제 개천절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제를 지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단기 4339년 개천절 곳곳 행사

단기 4339년을 기념하는 개천절 행사가 3일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8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 여의산 정상 5월루 잔디광장 광주단성전에서는 광주 국조숭모회 주관으로 개천절을 기리는 개천대제가 3시간 30분 동안 열렸다. 최기영 국조숭모회장,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 정남준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하늘굿과 제례, 민족의례 등 순으로 진행됐고 태평무·가야금병창·농악놀이 등 민속공연도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서 최기영 회장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자 개천절 행사를 마련했다"며 "제천문화를 통해 잃어버린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 무등산 천제단에서도 광주민학회 주최로 열린 개천대제가 열려 한민족의 생일을 기렸다. 곡성군과 순천시의 단군전에서도 국조숭모회 주최로 개천대제가 열려 민족 화합과 조국의 통일을 기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무원 징계사유

'직무태만' 1위 '금품수수' 2위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의 징계사유로 직무태만과 금품수수가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했다.

3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에 대해 내린 파면, 해임 등 296건의 징계처분 가운데 38.5%에 해당하는 114건이 직무태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품수수가 91건으로 30.7%를 차지, 직무태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징계사유에 속했다. /연합뉴스

황혼이혼, 신혼이혼 앞질러

결혼후 '26년 이상 살다' 헤어진 경우 19% 최다

명절 직후 이혼 반짝 증가 … 가족 갈등 때문인듯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황혼 이혼'을 신청하는 사례가 신혼부부 이혼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추석이나 설 등 명절 직후 일시적인 증가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3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호원)에 따르면 올 1~7월 이혼 신청 사건을 부부의 혼인기간에 따라 8개 범주로 구분해 신청률을 비교한 결과 결혼 후 '26년 이상'이 전체(2천58건)의 19%(391건)에 달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11~15년'(15.7%), '16~20년'(14.6%), '4~6년'(13.2%), '7~10년'(12.6%), '21~25년'(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노년층의 경우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상대 배우자를 충분히 이해한 만큼 파경을 맞는 일은 좀처럼 드물 것이란 '상식'을 깨고 결혼 기간 26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신청률이 '1~3년'(9.4%), '1년 미만'(4.1%)인 신혼 부부들의 신청률을 크게 앞지른 것이다.

이혼 신청 사유(복수응답)는 성격 차이(39.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약물·알코올 등 중독(16.8%), 경제문제(12%), 외도(6.8%), 시댁 및 처가와의 갈등(6.6%) 등으로 집계됐다. '시댁 및 처가 갈등'이 이혼 원인인 경우 전체 282건 중 설 명절이 있었던 1월에 29.4%(83건)가, 설 직후인 2월에 24.5%(68건)가 각각 접수돼 일시적인 급증세를 보였다.

박종택 서울가정법원 공보담당 판사는 "명절에 시댁이나 처가에 가는 문제나 양가 선물 문제 등으로 고부(姑婦) 간 혹은 가족 간 갈등을 겪은 뒤 이혼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명절 증후군'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도청 이전 환경부담금 2배 부과 관련

무안군 주민 '불이익' 없앤다

환경부 시행령 개정키로

전남도청 이전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2배 이상 늘어났던 무안군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전남도는 3일 도청이전으로 무안지역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당초 군지역에서 도청소재지 지역으로 분류돼 이전보다 2배 이상 많게 부과됐으나 환경부로부터 관련 법 시행령을 고쳐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160㎡의 시설물 소유자와 모든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지난 199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전남도청이 무안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과기준이 되는 지역계수가 무안군 전지역이 당초 군지역에서 도청소재지 지역으로 분류돼 지난 9월 초 무안군이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남도청 이전보다 2배이상 많이 부과됐었다. 실제로 무안군의 경우 전남도청 이전으로 무안군 전지역이 도청소재지 지역계수(0.4→0.97)를 적용해 부과함에 따라 도청이전 이전 6억2천만원에서 14억8천만원으로 139%인 8억6천만원이 증액돼 지역주민의 원성이 잇따랐다.

임영묵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도청이전에 따라 발생한 무안지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한 결과 시행령을 개정,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공기업 '낙하산 인사' 막는다

당정 '공공기관 운영 법률안' 연내 처리 방침

임원후보 검증委 노동계 추천 인물 참여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후보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이는 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인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적지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예산처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연내에는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낙하산인사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획처가 제출한 법률안을 놓고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거쳐 보다 완벽한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처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안상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해당된다"면서 "최근 열린우리당 주최 공청회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방안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인물 1명을 참여시키는 방식인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하고 "이 법률안 시행령 작업을 하면서 좀더 깊은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처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운영법안에 따르면 공기업의 기관장.비상임이사.감사,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감사는 임원추천위 심사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참여정부의 점수를 보는 것 같다

산행안내

▲광주토요산악회 설악 공룡능선(오색~설홍사) 무박산행 10월7일(토) 21:00시 광주역(문예회관경유)출발 http://cafe.daum.net/gwangutoyo T.011-608-4267, 011-634-2044

▲광주토요산악회 설악 공룡능선(오색~설홍사) 10월7일(토) 21:00시 광주역(문예회관경유)출발 http://cafe.daum.net/gwangutoyo T.011-608-4267, 011-634-2044

▲광주등산클럽 충남 계룡산 10월7일(토) 08시 광주역 3번마티마트앞출발 T.011-604-9921

▲광주산사랑모임산악회 장흥 천관산 억새산행 10월8일(일) 08시 무등경기장 후문 수원장 앞 출발 ※다음카페:광주산사랑모임 T.010-7171-2682

▲광주백호산악회 장흥 천관산(억새산행) 10월8일(일) 08시 문예회관후문 추발 http://cafe.daum.net/kjwhitetiger T.010-9886-8959

▲해오름산악회 화출산(주몽활영지경유) 10월8일(일) 08시 대인광장 신평화관앞 출발 T.062-369-9491, 011-601-8815

▲알프스산악회 충남 공주 계룡산(갑사~동학사) 10월8일(일) 08시 대인광장 신평화관(무등도서관경유)출발 T.267-5307,010-4616-1460

▲청운산악회 월출산 구정봉 10월8일(일) 08시 광주역 앞 출발 T.011-605-5034, 011-601-8238

▲한국산악회 충북 바랑산(미륵봉) 10월12일(목) 07시 염주체육관(문예회관경유)출발 ※예약바람 T.011-615-2279

▲청운산악회 월악 금수산 종주(갑사~미륵리능선) 10월12일(목) 07시 대인광장(신평화관앞)출발 T.011-644-6605, 017-589-7800

▲광목산악회 과산 군자산 종주(갑사~미륵리능선) 10월12일(목) 07시 대인광장(신평화관앞)출발 T.011-9614-2729

▲명문산악회 충청북도 괴산군 조봉산 10월 9일(월) 07시 송정공원(광주역, 문예회관 경유) 출발 T.011-644-6605, 017-589-7800

▲팔성산악회 설악산~공룡능선~백담사~오대산~비로봉 1박2일산행 10월9일(월)06시40분 풍암중(백운로터리, 문예회관경유) 출발 ※다음카페:광성관광 T.011-605-3477

▲청운산악회 월출산 도갑~바람재~구정봉~왕인석굴~월출산 2박3일산행 10월12일(목) 04시 광주역(동해북 호남:10:00시)출발 ※다음카페:광성관광(회비:250,000원) T.011-605-3477

▲가고파산악회 강남 계방 우드산과 작은가야산 10월12일(목) 08시 광주역 앞 출발 T.011-605-5034, 011-601-8238

▲한국산악회 충북 바랑산(미륵봉) 10월12일(목) 07시 염주체육관(문예회관경유)출발 ※예약바람 T.011-615-2279

▲에향토요산악회 강원도 설악산 무박산행 10월13일(금) 21:00시 광주역(문예회관후문경유) 출발 ※다음카페:에향토요산악회 T.019-392-4277

▲광주현산우회 설악산(공룡능선) 무박2일 산행 10월14일(토)21시30분 염주체육관(문예회관경유)출발 T.011-620-1977, 011-9452-9338

▲샘신협산악회 한양 월봉산 10월15일(일) 08시 방림파출소앞 출발 ※증시 및 산행장비 T.016-609-0659

▲화내산악회 선복 팔유산, 향적봉 10월15일(일) 08시 화정동 추산화관앞(문예회관경유)출발 T.011-617-6979

▲울림산악회 설악산 무박산행(오색온천~대청봉~비선대)10월19일(목) 21:00시 상록회관앞(문예회관경유)출발 T.011-602-3515

▲광주목요산악회 변동산(무등산 산감원도 정산, 삼칙동행) 1박2일산행 10월19일(목) 07시 광주역 앞 출발 T.011-601-8984, 011-441-8845

▲광주자연보존산악회 중국 황산 3박4일 산행 10월19일(목)~10월22일(일)11시30분 광주공항 출발 ※cafe.daum.net/JAYNSAN T.016-874-2900

▲광주산사랑토요산악회 강원도 설악산 단풍축제 1박2일산행 10월14일(토) 08시 문예회관후문앞출발 ※회비:120,000원(28석 관무진차량운행)※다음카페:광주산사랑토요산악회 T.010-7171-2682

▲나사모산우회 백두대간(조침령~구봉팁) 무박산행 10월14일(토) 23:00시 광주역광장 출발 http://cafe.daum.net/gwnasamo T.062-525-7223

▲무등산악회 동해 낙타산 무박2일산행 10월14일(토) 21:00시 롯데백화점 정문(드림존 은행앞 송유)출발 T.011-9606-1954, 011-604-2903

▲광주백호산악회 원주 치악산 단풍산행 10월15일(일) 06시 문예회관후문(죄관경유)출발 http://cafe.daum.net/kjwhitetiger T.010-9866-8959

▲다음카페:(사)요산요수산악회 무주 적상산 10월15일(일) 08시 남광주광장(양림동주택,동 광주중앙)출발 T.011-620-2002

▲광주알프스산악회 설악산 내청봉(단풍산행) 10월21일(토) 20:00시 대인광장 신평화관앞(무등도서관경유)출발 T.267-5307, 010-4616-1460

▲삼각산악회 함천 마회산, 해인사, 남산제일봉 10월22일(일) 08시30분 두암동88테니스코트장 앞 출발 T.011-644-2730

▲원광산악회 지주 한라산(1박2일) 10월28일(토) 06시30분 구도청(상무관)출발 ※9월20일까지 선착순 접수 T.011-9624-0508

▲산과희망 제주도 한라산 단풍산행원모집 1박2일 10월28일(토) 07시 광주역 앞 출발※다음카페:산과희망 T.011-619-4609

▲상무관광산악회 대미도산행 및 관광 복요일출발(1박2일) 장일성시사 인상 보호함 ※출발10일전 여야접수 마감. 여권필수 T.062-361-1900

▲모두투어(주) 동양 중국 황산~천도호 3박4일 11월매주 (수,토) 공항미환황공)출발※다음카페: 광주산악부클럽 T.655-0079, 011-612-1770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만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우측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 직통 :(062)227-9600, 220-0524, 0525
• FAX:227-9500

◆광주은행 : 001-107-228160 ◆농 협 :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무담보 무보증

가계·당좌·어음수표·차량급전

연락처 010-4408-8911

건물임대

1층	225평
2층	225평
3층	225평
4층	135평

◉대지 720평 ◉주차 80대
◉하남무진로 80m 도로변
◉한국농촌공사 옆 건물

☎017-620-2311
010-2255-2600

현대인의 웰빙식품 오디 녹산오디

●녹산오디 원액 〈1호,2호,3호〉

〈1호〉 120,000원 〈2호〉 90,000원 〈3호〉 100,000원

●4호 녹산오디 팩 〈30포,60포,100포〉

30포 45,000원 60포 90,000원 100포 150,000원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D) http:// 녹산오디 >go 을 치세요

녹산오디 호남총판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1125-2(부원빌딩 4층) TEL: 062)956-5254 FAX: 062)956-5258

녹산오디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오디의 성분
오디에는 포도당, 과당, 칼슘, 철분, 칼륨,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A, B1,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과일중의 황제"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오디에는 철분이 다른 과일에 비해 4~5배이상, 칼슘은 딸기의 2배이상, 그밖에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등 미네랄 성분이 듬뿍 들어 있다. 그리고 환경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이연이 뽕잎보다 오디에 다량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영양소 걸핍시 성장기 어린이의 빌육 지연이나 미각장애에도 영향을 준다고 요즘 주목받고 있다.

■오디는 노화진행 지연, 잎은 성인병에 도움
오디가 시람을 총명하게 해준다는 기록도 있다. 술로 만들어 먹으면 수기(水氣)를 이름게 해주고, 종기등을 가라앉혀 준다. 또 다른 기록(본조식감, 本朝飾鑑)에는 '오디 검게 익은것 1되에 좋은 술 3되를 넣고 설탕 2~3근을 넣어 저은후 35일이 지나면 마신다' 고했다.

■오디 100g 중의 성분
• 칼 슘 39.6mg • 마그네슘 19.7mg • 비타민 B2 0.05mg • 철 1.59mg • 아 연 1.39mg
• 비타민 B6 74mg • 칼 륨 234mg • 비타민 B1 0.04mg • 비타민C 33mg

※모든 제품은 방부제나 첨가물이나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필히 냉장보관 하여 드십시요.